

- **주요 뉴스:** 우크라이나 외무장관, 양국 협상에 대한 푸틴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를 반박
 - 바이든 대통령, 미 의회에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 종료를 요구
 - GS,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. 리세션 확률도 최대 35% 전망
 - ECB,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최대 7.1%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
- **국제금융시장:**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협상 부진 발언에 위험회피심리 강화
미 주가 하락[-1.3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상승[+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협상 소식에 따라 출렁이며 불확실성 확대
 유로 Stoxx600지수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발언에 상승세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우크라이나 위험이 높아지며 상승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7%, 1.0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
 독일은 지정학 위험 등을 반영하며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37.9원, +8.4원) 약세, 한국 CDS 상승

		3/11일	3/10일	전일대비			3/11일	3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204.3	4259.5	-1.30%	국채 금리 10y	미국	2.00%	1.99%	1bp
	유럽	431.2	427.1	0.95%		독일	0.25%	0.27%	-2bp
	중국	3309.7	3296.1	0.41%	CDS 5y	한국	31bp	29bp	1bp
	일본	25162.8	25690.4	-2.05%		중국	58bp	54bp	4bp
	한국	2661.3	2680.3	-0.71%	위험 지표	EMBI+	-	597	-
환율	달러지수	99.11	98.51	0.61%		VIX	30.75	30.23	1.72%
	유로화	1.0913	1.0986	-0.66%		WTI유	109.37	106.02	3.16%
	엔화	117.3	116.1	-0.97%	원자재	구리	458.5	464.35	-1.26%
	위안화	6.3393	6.3222	-0.27%		금	1986.8	1997.0	-0.51%
	원화	1232.0	1228.3	-30.0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, 양국 협상에 대한 푸틴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를 반박

-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이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, 일부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
- 하지만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언급. 현재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회담만이 갈등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
- 한편 유럽연합이 12일 러시아 경제 제재 관련 4번째 정책패키지를 선보일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, 도이치뱅크는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러시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바이든 대통령, 미 의회에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 종료를 요구

- 정상무역관계는 최혜국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, 해당조치가 종료될 경우 수입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러시아가 미국과 거래하는 것이 어려워져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-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러시아 무역지위를 취소하는 법안을 다음주 제정할 수 있다고 발언. 지금까지 해당조치가 발효된 국가는 쿠바와 북한 등 2개국
-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 나토를 방어할 것이나,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하여 갈등을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

■ 골드만삭스,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. 리세션 확률도 최대 35% 전망

-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,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상승 등으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.1%에서 2.9%로 하향 조정
- 수정된 전망치는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도 20~35%로 높아진 상황. 이는 수익률 곡선에 기반한 추정 모델의 리세션 확률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

■ ECB,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최대 7.1%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

-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경우 '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.1%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
- 다만 ECB의 기본 전망은 금년 5.1% 상승이며, 심각도가 덜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경우 5.9%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

■ 한편 일부 ECB 위원들은 ECB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 전망 시사

- 빌루아 정책위원, 10일 ECB 결정으로 QE 중단과 금리인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다고 평가. 자산매입 종료 이후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작할 것이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황
- 렌 정책위원, 금리인상 시점은 유동적이며 앞으로 ECB는 통화정책 결정에 전보다 많은 재량을 얻었다고 평가. 새로운 가이드에 나온 금리인상 시점 멘트(‘얼마 후’)는 지적학적 상황 등에 따라 일주일일 될 수도, 수개월이 될 수도 있음
- 한편 물러 정책위원은 우크라이나 위험으로 유럽 전체의 경기 회복세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. 다만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10년래 최저. 단기 인플레 전망은 40년래 최고

- 3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59.7로 전월대비 3.1pt 하락했으며, 이는 '11.9월 이후 최저 수준. 1년 이내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5.4%로 '81.11월 이후 최고 수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14 현지시각 기준)

- ECB 엘더슨 이사 speech, Eurogroup Meetin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